

전남도 산업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이 절반

<28%> <20.7%>

10년전 체제 그대로 ... 제조업 8.3%, 금융·보험업 1.2% 여전히 취약

2004년-2014년 사업체 비교

전남도의 산업구조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성장이 더디고,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초고령화(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5분의 1 이상인 경우) 사회 진입 등의 원인으로 보건·사회복지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일보가 지난 2004년과 2014년의 전남도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4년 전남도내 사업체 수는 14만 2932개로, 2004년에 비해 1만6897개(13.4%) 늘었다.

10년간 보건·사회복지업이 2784개에서 5076개로 2292개가 많아졌으며, 제조업이 1만95개에서 1만1885개(1790개), 교육서비스업이 5171개에서 6074개(913개), 부동산 및 임대업이 1838개에서 2522개(683개)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4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소매업(30.5%)과 음식·숙박업(21.9%)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각각 28.0%, 20.7% 등을 차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의 비중은 8.0%에서 8.3%로 0.3%p 상승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10년 전과 같은 1.2%로, 변화가 없었다.

전남도내 업체들의 영세한 규모도 여전했다. 2004년 11만681개로, 87.82%를 차지했던 4인 이하 업체는 2014년 83.87%(11만9870개)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300명 이상 업체는 2004년 53개에서 2014년 83개로 증가해 대기업 유지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업체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65만

6218명으로, 2004년에 비해 17만625명(36.8%)이 늘었다.

시·군별로는 2014년 여수(2만2457개)·목포(2만532개)·순천(1만9834개) 등이 각각 15.7%, 14.4%, 13.9%를 차지해 전남도 절반에 가까운 44.0%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곡성과 구례는 각각 2026개, 2236개로 1%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여성종사자는 2004년 19만5047명에서 2014년 25만9733명으로 증가했으며,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비중이 높았다. /윤현석기자 chadol@



고사리 손으로 만든 아토피 예방 비누 13일 광주 북구 각하초 병설유치원에서 열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천연 피누만들기 교실'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직접 만든 비누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산업지표 급속 악화 ... 광주 광산업 '휘청'

김옥자 시의원 "예산지원 늘지만 매출 하락·고용인력 감소"

광주의 대표 주력산업이며, 지역 전략산업이었던 광산업(光産業)이 휘청거리고 있다. 광산업 연구개발과 기반 구축에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매출 하락은 물론 고용인력도 감소하는 등 산업지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옥자(국민·광산 3) 의원은 1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광산업 매출은 22% 증가한 반면 광주는 4%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성장률(2010~2013년)도 국내 연평균 15.7% 높았으나 광주는 2.2% 증가한데 불과했다. 고용인원도 전국 평균 16% 증가했지만, 광주는 2%에 그쳤다.

광주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광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서에서도 업체 수와 매출 모두 2013년 360곳과 2조7105억원을 최고를 기록한 후 이후 급감했다.

2014년은 업체 수와 매출이 306곳, 2조

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4곳(15%), 3479억원(12.8%)이나 줄었다. 지난해는 하향세가 더 두드러져 288곳과 2조2507억원으로 추락했다. 그나마 업체 중 절반 이상인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LED의 경우 국내 매출액 10위안에 드는 기업이 한곳도 없다.

여기에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이나 원래 소재 지역으로 이전하는 '역외유출' 기업도 상당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대비 76개의 업체가 폐업하거나 이전을 했고, 1395명이 일자리를 잃었

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비와 시비 등 현재 지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70억원에서 2014년 126억원, 지난해 193억원, 올해는 203억원이 지원됐거나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지원 속에서도 광산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LED 등 일부 분야에서 저가 중국산 공세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통신, 광학기기 등으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광의료, 전장부품, 에너지 사업 등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위주로 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와 김호남(가운데) 다산베아채CC(주) 회장, 강진에 강진군수가 13일 강진군청에서 강진베아채골프리조트 조성을 위한 55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다산베아채CC, 강진에 27홀 골프장·리조트 건설

전남도·군과 550억 투자협약

강진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타운하우스를 갖춘 골프리조트가 들어선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13일 강진군청에서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회장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골프리조트 건설 투자협약을 했다.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은 1989년 설립됐으며 목포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 근화건설의 자회사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이날 고마미지(외도 40억)에 투자협약을 했다. 고마미지는 강진절단 6000㎡에 2019년까지 배추김치 등 절임식품, 밀반찬, 음료 등 가공시설을 갖춘 농산물 공장을 짓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과 주민은 2005년부터 골프장 투자유치를 추진, 2012년에는 대지 매입과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나 불황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이번에 투자자를 찾으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 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전문기관 뜬다

사단법인 뿌리산업진흥회 설립

광주지역 제조업의 성장엔 역할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이 설립된다.

광주시는 13일 뿌리산업 육성 산실 역할을 할 사단법인 광주뿌리산업진흥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鑄性加工)·표면처리·열처리 등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6대 기초 공정 산업을 말한다.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부품 수 기준 90%(2만2500개), 무게 기준 86%(1.36t)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의 근간이기도 하다. 진흥회는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되고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산학협력단,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영암서 열린다

15~16일 F1 경주장서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를 총괄산하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15~16일 영암 국제 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페스티벌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카트, 모터사이클, 드림트, 포틀러, 코치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 300여대가 참가한다. 메인 클래스인 코리아 르망(KLM)은 차종과 무관하게 마력수를 기준으로 참가 등급을 구분하고 1시간 동안 주행 거리로 순위를 정하는 경주다.

6200cc급 스톡카를 비롯해 포르세, BMW M3, 벨로스터 등이 참가한다. '전남 GT' 클래스는 출력 규제 없이 고출력 슈퍼카가 참가하는 대회다. 6랜(비키) 수를 가장 빨리 통과하는 차량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페라리 458 스쿠데리아, 랍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등 세계적 명차들로 기량을 겨룬다. 국내 모터사이클 대회 'KSB1000'은 1000cc의 배기량에서 뽑아져 나오는 평음과 코스를 따라 좌우로 넘어질 듯 질주하는 바이크의 스피드로 자동차 경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풍의 하얀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피안 동해바다-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7099㎡).

※ 기명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금 일시불 납부 시 약 6% 할인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 | | | | |
|-------------------|-----------------|--------------------------------|--------------|--------------------------|---------------|
| EQUESTRIAN | YACHT | GOLF | SKI | OCEAN WORLD | RESORT |
| 소노펠리체 송아클럽 | 거제 마리나 베이 |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오리) 리조트 및 4가지 유희시설 |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 기명 신규회원 특별혜택 | |
| 주말 20%, 주중 40% |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 주말 50%, 주중 무료 | 무료 | 주말, 상수기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 객실 회원 요금의 50% |

전국 13개 특영 리조트 - 비발디파크(스키/힐링/오션월드/안트림/골프) - 소노펠리체 - 델피노 - 골프 앤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광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거제 마리나 - 영일호링 여수 - 영일호링 고령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패밀리/스위트 납입계획 | 예금주 (주)대명레저산업 ※ 지정 계좌로 입금된 납입금만 유효합니다. 우리은행 1005-900-99780 국민은행 614701-04-002581 신한은행 295-05-061967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정성으로!

초당요양병원

초당요양병원

자연과 함께하는 서비스

-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

복지프로그램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환자의 정서 및 육체적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호서비스

- 간호인력의 24시간 간호 서비스 제공
- 투약관리 및 지도
- 호스피스(임종간호)

치매 / 뇌졸중(중증) / 호스피스/당뇨 / 고혈압 / 각종노년성질환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초당요양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생남1길 97-2

☎ (061) 453-4300
FAX (061) 453-1119